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을 통틀어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에서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다시 현금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 예금, 제품, 원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고정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업활동에 계속 사용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데, 감소한 가치를 측정하여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가령 한 기업이 영업 목적으로 예상 수명이 10년인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동안 이 노트북의 가치 중 10만 원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장부에서 노트북의 가치를 90만 원으로 감소시킨다면, 이 노트북은 10만 원 만 큼의 감가상각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된 노트북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고정자산의 특성상 감가상각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가상각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가상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와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취득원가는 자산을 얻기 위해 투입된 금액이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을 배분할 총 기간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만료된 후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정액법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일정하게 분배하여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이는 $\text{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매년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자산에 적용하기에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계산이 간편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달리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한다.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를 식으로 나타내면 $\text{감가상각비} = \text{감가상각률} \times \text{장부가액}$ 이 된다. 여기서 감가상각률은 특정 공식을 통해 계산되며 장부가액은 이전 연도까지의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남은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정률법은 장부가액에 매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자산의 가치를 더욱 합

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이용 정도에 비례하여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text{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 \times \frac{\text{당기실제생산량}}{\text{총추정생산량}}$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생산량은 해당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공장의 기계라면 실제 제품 생산량으로 계산하고, 쓰레기 매립지라면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운행시간, 작업시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생산량비례법은 실제 생산량을 측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특히 광산, 유전 등의 자연 자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이 존재한다. 기업은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형태가 없는 것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 ② 제품이나 원재료 등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 ③ 내용연수는 앞으로 감가상각을 더 진행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 ④ 비유동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다.
- ⑤ 감가상각의 방법 중 이중체감법과 연수합계법은 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트북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② 노트북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되었다면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0원이다.
- ③ 노트북이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 되었다면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0원이다.
- ④ 노트북의 감소된 가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다.
- ⑤ 노트북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으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3.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 ② ㉢과 달리 ㉣은 적용이 간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작년과 올해의 감가상각비를 다른 금액으로 추정한다.
- ④ ㉠과 달리 ㉢은 이론적으로 한계로 인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 ⑤ 10년 동안 1만 톤의 금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있다면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다음은 (주)진교에서 2021년 1월 1일에 구입한 비유동자산 A, B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 A>

취득원가 : 200만 원
내용연수 : 5년
잔존가치 : 50만 원

<기계 B>

취득원가 : 350만 원
내용연수 : 10년
잔존가치 : 0원

※ 두 자산에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률은 0.2이다.

※ 두 자산의 총 추정 생산량은 각각 4,000개와 8,000개다.

※ 제시된 조건 외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에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첫해의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다.
- ② B에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첫해의 감가상각비는 80만 원이다.
- ③ A와 B 모두 정액법을 적용한다면 7년째 되는 해의 감가상각비는 B가 더 크다.
- ④ A에 B 모두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면 5년째 되는 해의 감가상각비는 B가 더 크다.
- ⑤ B는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기 실제 생산량을 측정하지 않아도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해설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감소된 고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은 모두 자산으로 분류된다.
- ② 제품과 원재료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 ③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을 배분할 총 기간, 혹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 ⑤ 이중계감법과 연수합계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추정생산량과 당기실제생산량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알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트북을 얻기 위해 100만 원을 투입했고 1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정액법 계산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취득원가 100만 원을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잔존가치는 0원이다.
- ④ 비유동자산의 특성상 감가상각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기업의 자산 중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을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한다.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생산량비례법은 실제 생산량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반면, ㉡정률법은 매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지만, ㉡정률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 ③ ㉠정률법과 ㉢생산량비례법 모두 작년과 올해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다를 수 있다.
- ④ 이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액법이며, ㉢생산량비례법은 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 ⑤ 광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된다. 이때 매년 감가상각비는 A가 30만 원, B가 35만 원이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00만\ 원 - 50만\ 원) / 10 = 30만\ 원$
- ② B의 첫 해 장부가액은 350만 원이므로 감가상각률 0.2를 곱하면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70만 원이다.
- ④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경우 당기실제생산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달라진다. 따라서 5년째 되는 해의 감가상각비는 알 수 없다.
- ⑤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기실제생산량이 반드시 필요하다.